

가뭄 속 한숨 돌린 광주시...제한급수 늦췄다

식수원 동북댐 고갈시기 6월초·제한급수 예정일 5월초로 연장
 이달 34mm 강우·시민 절수운동에 광주시 다각적 노력 효과

최악의 가뭄 속 광주시민의 식수원인 동북댐 고갈시기와 제한급수 예정일이 다소 늦춰졌다. 광주시는 시민 절수운동과 함께 다각적 노력이 불러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뭄이 해소된 것은 아닌만큼 지속적인 물 절약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삼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1월31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동북댐 고갈시점은 6월 초로, 제한급수 예정일은 5월초로 연장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해 12월 동북댐 고갈시기가 5월 중순으로 예상된다는 이에 앞선 3월 초부터 제한급수에 들어 갈 수 있음을 예고했다. 제한급수 위기 속 다행히 이번 달 34mm의 비

가 내렸다. 여기에 시민 절수운동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전년 대비 총 285만㎡의 수돗물을 절감했다.

광주시는 심각한 가뭄이 이어지자 지난해 11월부터 배수지와 블록별 수압조정, 집중 누수탐사·정비 등을 통해 누수율을 최소화했다. 또 주암댐 용수 추가공급을 통한 동북댐 사용 가능 일수를 연장하는가 하면 환경부 건의를 통해 주암댐 용수의 덕남·용연정수장 분할 공급을 가능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상수원수 비상공급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영산강 하천수 비상공급 사업으로 2월 말부터 하루 2만, 4월 말에는 하루 5만의 영산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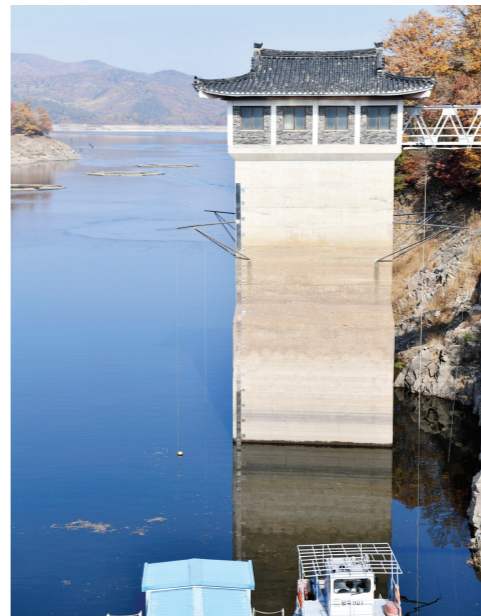
을 정수장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동북댐 상류 관정개발도 진행중이다. 38공을 착공, 4월 말부터 하루 1만~2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지만 지난해 5월과 같은 500년 빈도의 가뭄이 올 봄에도 발생한다면 6월 초 동북댐이 고갈될 수 있는 만큼 여전히 5월 초 제한급수 실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이정삼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절수운동에 참여 준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장마철 호우로 동북댐 저수율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적극적인 시민 절수운동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 “광주시민 하루 물 사용량은 2021년 기준 1인당 약 305ℓ이다. 이는 전국 특·광역시 중 인천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사용량이다. 지금의 가뭄 상황이 해소되더라도 시민들의 물 절약 생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재 동북댐 저수율은 24.78%다.



화순군 이서면 동북호 취수탑 주변 수위가 낮아져 있다.

김재환 기자

‘ 시내버스 운행 중단’ 목포시 비상수송차량 증차·증회

시내버스 운행 중단이 지속됨에 따라 비상수송차량 운행 전세버스의 운행횟수를 증회하고, 노선을 확대·운영한다.

목포시는 태원·유진 시내버스회사의 가스비 미납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 중단으로 운행하고 있는 비상수송차량을 2월 1일부터 12대 증차한다고 1월31일 밝혔다.

비상수송차량은 현재 11개 노선(1번, 1A번, 2번, 6번, 9번, 11번, 13번, 15번, 20번, 33번, 60번) 63대를 운행 중에 있으며, 증차에 따라 75대를 운행하게 된다.

운행 횟수도 증회된다. 이용객이 많은 주요 5개 노선(1번, 1A번, 9번, 20번, 60번)은 배차간격을 단축해 증회 운행한다.

2-1번 노선은 신설된다. 학생 등하교 이동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옥암~부주~향도여중~영흥중~정명여중~목포여중을 경유하게 된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주머니 가벼운 어르신들

여가시설 이용료 인상 예고

빛고을노인건강타운·효령노인복지타운 식비·목욕탕비 각각 1천원씩 인상 계획

주머니 가벼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광주시 노인복지시설들이 일제히 이용료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1월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위탁·운영중인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의 식당과 목욕탕 이용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식당 이용료는 기존 1식(점심)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목욕탕 이용료는 2000원에서 3000원로의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 지역 대표 노인복지시설인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의 경우 2020년 1월 1일 기준 식당과 목욕탕 이용료를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하루 평균 2000명 안팎이 이용하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어르신들은 일 평균 1000~1500명에 달한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A(76) 어르신은 “별다른 수익이 없는 노인들에게는 단돈 몇 천 원도 큰 돈”이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 인상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 한 상황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식재료비 등이 무섭게 상승, 이용요금을 현실화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최이슬 기자

여수 웅천 공사현장 흙막이 붕괴, 원인은 ‘부실시공’ 결론

바닷물 유입 방지 위한 차수대책 부족
 여수시, 건설사·감리사 행정처분 계획

여수시 웅천동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 흙막이 붕괴 및 바닷물 유입 사고 원인은 건설사의 부실시공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1월31일 여수시는 지난해 11월 여수시 웅천동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흙막이 붕괴 사고에 대한 원인과 처리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사고 직후 원인 규명을 위해 ‘여수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3개월여간 사고 조사에 나섰다.

조사위에 따르면 해안을 매립해 조성된 부지는 바닷물의 영향으로 조수간만의 차가 발생하는 지형적 특성으로 지하 터파기를 진행하면서 차수(물이 새거나 흘러드는 것을 막음)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했지만, 이에 대한 시공과 관리가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예초 설계에는 수로 호안 쪽 흙막이 벽체



여수 웅천동 생활형숙박시설 공사현장 흙막이벽 붕괴 사고후 바닷물이 유입돼 있다. (사진=여수시 제공)

를 차수성이 있는 시트파일(SHEET PILE)로 계획했으나 흙막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흙막이벽(C.I.P : Cast In Place Pile) 벽체로 변경하면서 보조차수공법을 고려하지 않

았다 것이다.

이에 부분적으로 불안전 차수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토사유실로 이완영역 발생과 토압 증가로 흙막이 벽체가 붕괴했을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또 매립지의 특수성을 감안해 흙막이 설계 시 철저한 분석과 흙막이 벽체 시공과 계속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함에도 이에 대한 품질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 터파기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과 굴착과 STRUT(흙막이 수평 버팀대) 시공 지연이 확인되는 등 시공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밝혀졌다.

여수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사, 감리사 및 공사관계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흙막이 붕괴 원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에 나선 방침이다.

우선 흙막이 공사에 대한 설계를 보완해 국토교통부에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임시 복구 구간의 차수그라우팅, 배수계획 수립, 터파기 공사 시 주 1회 이상 외부전문가 현장 점검 등 지하 터파기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 후 공사 재개를 승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안가 매립 부지 흙막이 공사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공사 안전 점검에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수=김현근 기자

제51회 흙·사람 그리고 불

강진청자축제

2023. 2. 23. 목 ~ 3. 1. 수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요지 일원

주최 | 강진군 주관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